

## 전후 한국 지식인의 '자유 중국' 인식(Perception of Korean Intellectuals about 'Liberal China' in post-war period.)

윤영현(Yoon, Young-Hyun)<sup>1</sup>

###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된 미중 화해와 냉전 해빙 무드(데탕트)는 한국과 대만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중국 수교와 그에 따른 대만과의 단교'(1992년)라는 중대한 변화를 낳게 했다. 이는 한국-대만 관계사에 있어서 실로 중대한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한국 사회의 중화권에 대한 관심은 대만보다는 규모와 경제력, 인구 등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인 대국(大國)이라 할 수 있는 '중국'으로 급격히 쏠리게 되었다. 현재 대만을 '자유중국'이라 호명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으며, 언중(言衆)들에게 '중국'은 어디까지나 '베이징을 수도로 삼는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아시아 대륙의 이웃 국가'를 지칭하는 용례로서만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용례는 초역사적으로 자명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라는 것은 어쩌면 한 고정적 영토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세계사 및 동아시아의 전개과정에 따라 그 내포가 변동하는 '유동적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개념'이다.)<sup>2</sup> 주지하다시피 '개념'은 그 내포에 있어 '고유명사'에 비해 훨씬 큰 폭의 역사적 유동성을 가진다. 이를테면 1992년 중국수교-대만단교라는 중대 변화 이전 특히 첨예한 진영논리가 작동하던 전후 냉전기에 '중국'이라는 기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포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중공'에 대한 대타개념으로서 '공산화되기 이전의 동양 문화를 창출했던 기원으로서의 대륙의 공간'이라는 내포를 지님과 동시에 두 음절 그대로 '대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었다. 즉 냉전기 진영논리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던 전후 1950년대에는 '대만'이 '중국'이라는 두 음절로 불리어 지기도 했었던 것이다. 물론 대만을 호칭하는 '자유중국'이라는 보다 빈도수가 높은 용례가 있었지만, 전후 (남한) 지식인들의 대만 여행기나 시, 논설 등을 살펴보면 대만을 그냥 '중국'이라 호명하는 사례 역시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때 대만을 '중국'이라 호명하는 행위의 이면에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양분할적 세계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공산화된 '중공'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는 것이며, '장개석 총통을 위시한 국민당 세력과 그들이 대륙으로부터 물러나 자리 잡은 '대만(자유중국)' 이야 말로 '중국'이라 불릴 만한 자유국가라는 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만과 장개석 총통을 제재로 삼아 쓴 시 그리고 대만 여행기나 냉전체제 하 양안 관계를 다루는 논설 등에 이르기까지 전후 남한 지식인들의 텍스트들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 대해서 역시 '문화'나 '문명', '사회', '문학' 등의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개념사적 접근방법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sup>1</sup> 연세대

<sup>2</sup>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백영서, 「우리에게 대만은 무엇인가-다시 보는 한국-대만 관계」, 『대만을 보는 눈』, 창작과비평사, 2012, 32~33쪽.

본고는 바로 이 시기, 한국전쟁 이후에서 대만 단교 이전에 이르는 냉전기 중에서도 냉전 의식이 가장 첨예하게 표출되었던 시기인 한국전쟁 직후(전후)에 주목하여 해당 시기 남한 지식인들의 텍스트에 나타난 대만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대만 인식에 내포된 냉전이데올로기와 그것에 개재된 ‘아시아 민족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장개석 총통이라는 강한 타자를 매개한 총체적 근대화’에 대한 욕망’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 남한 지식인들의 대만 인식이 흥미로운 것은 그것에서 단순히 반공 이데올로기(대만을 ‘중국’으로 호명한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민족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 그리고 ‘더 강한 아버지(통치자)를 염원하는 간절한 태도’등 까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남한과 냉전기 자유진영의 일원이자 ‘같은 민족과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아픈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남한 지식인들에게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알맞은 타자이자, ‘변질되지 않은(공산화되지 않은) 친밀한 아시아의 벗’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해당 시기 남한 지식인들의 대만 지식인들과의 교류에 관한 기록(방문록, 여행기 등)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종의 ‘같은 아시아인으로서의 긴밀한 유대감과 이웃의 정’을 한껏 발산해 놓은 텍스트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장개석 총통으로 대표되는 국민당 세력(50년대 당시에 일당 독재)은 남한의 지식인들에게 유능하고 청렴한 행정가들로 구성된 ‘자유 진영’의 모범적 정치세력으로서도 포착되어 ‘현재 자국을 통치하고 있는 무능한 아버지(국부 이승만)’ 대신 진심으로 흠송할 만한 더 강하고 유능한 통치자 모델을 보여주는 가까운 모방대상으로서의 우방으로도 인식되었다. 이를테면 대만은 저 멀리 있는 서구와는 달리 ‘가까운, 같은 아시아 권역 내의 발전된 나라’로서 충분히 모방 가능한, 그리고 손에 잡히는 실현 모델을 보여주는 근린우방국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다만 해당 시기 남한 지식인들의 대만 기행기에 따르면 그러한 대만식 사회발전 모델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개석 총통 같은’ 이른바 “아세아의 위대한 어른”이자 “아세아의 영웅”<sup>3</sup>으로서의 강한 통치자가 도래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여러 모로 당대(50년대 후반) 지식인들의 대만 인식이 드러난 텍스트들을 60년대 초 박정희라는 도래할 강한 아버지를 예고하는 징후적 텍스트로 읽게 만들기도 한다. 50년대 후반 남한 지식인들의 대만 방문록, 여행기 등에 노골적으로 나타난 유능하고 대범하며 영웅적인 장개석 총통에 대한 과도한 찬미와 흠송의 태도는 강하고 유능한 통치자, 환언하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간절히 염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 조만간 도래할 박정희가 어떻게 권력 접수 초기에 과도한 저항을 받지 않고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징후적인 텍스트들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후 냉전기 남한 지식인들의 대만 인식을 살피는 것을 통해 이와 같은 주제들 즉 지금과는 완전히 판이한 해당시기 ‘중국’표상의 담론장 내에서의 작동방식과 함의를 알아보고 그것에 내포된 ‘매개된 욕망’<sup>4</sup> 즉 남한의 반공적 지식인들이 가졌던 ‘장개석 총통을 통한 매개된 욕망’의 작동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매개된 욕망이란 주제 안에 이미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장개석이라는 강한 타자를 통해 더욱 촉발된 조국 근대화과 그것을 실

<sup>3</sup> 조병화, 시 「송(頌) 장총통(蔣總統)」, 조병화 시집 『石阿花』, 정음사, 1958, 10쪽.

<sup>4</sup> 르네 지라르, 「1. ‘삼각형의’ 욕망」,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 송의경 옮김, 한길사, 2001, 39~102쪽.

현시킬 강한 지도자에 대한 열망을 포괄하는 총체적 발전 논리이자 발전 논리로서의 욕망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과업을 위해 본고는 전후 냉전기 주요 잡지 자료들에 나타난 대만 및 중국 관련 논설들(특히 당대의 대표적 종합지였던 『새벽』과 『사상계』에 나타난 대만 관련 논설들을 중심으로)을 살피고 1957년 문화친선단의 자격으로 송지영, 정비석, 조병화, 주요섭 등이 대만을 방문하고 난 뒤 쓴 기행기를 모아 출판한 『자유중국의 금일-대만기행』<sup>5</sup>(1958), 그리고 조병화의 대만 방문 기념 시집인 『석아화』(1958)를 분석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이 텍스트들은 당시 남한 지식인들의 대만인식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동시에 ‘대만(자유중국)’을 ‘경유해’ 남한의 지식인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었는지 역시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결론부에 쓸 내용을 조금 미리 언급하자면 결론적으로 이들은 ‘대만의 발전된 사회상과 그것을 영도한 장개석 총통을 통해서 일종의 ‘매개된 욕망’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욕망을 남한에 ‘투사’하고 남한을 비춰 보는 ‘거울’로 삼으려 하였다. 대만은 같은 민족(중공)과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냉전기 자유진영(더 좁게 말하면 이승만과 장개석이 결성한 ‘아세아반공연맹’의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남한과 많은 역사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같은 권역 내의 아시아 근린국이라는 점에서, 남한의 지식인들에게 모방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울상으로 작용하기에 알맞은, 권역 내 친우(親友)(자기보다 조금 앞선 가까운 친구, 따라서 실현 가능한 모방 대상)와 같은 타자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 2. 대만을 ‘중국’이라 호명한다는 것- 냉전질서 하 대만 인식

1957년 12월 3일 송지영, 정비석, 조병화, 주요섭 등 “12명의 지식계급 인사”들은 “자유중국 반공아세아연맹의 초청을 받고 방화한국문화친선단” 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학교, 농촌, 유적지, 금문도(중공과 가장 가까운 작은 섬-최전선 군사기지) 등을 둘러보고 교육부장(장관에 해당) 및 정부의 여러 요인들과 장개석 총통까지 예방하는 일정으로 14일간 “대만을 속속들이 견학”할 기회를 가졌다.<sup>6</sup>

이들은 우선 대만의 발전된 사회상에 놀랐는데, 이는 무엇보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 의해 중개된 대만에 대한 지식과 자신들이 실제 보게 된 대만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대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모르면 모르되 대만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우리들은 ‘빠나나와 설탕이 많이 나는 더운 나라’ 그리고 ‘아직도 번죽이 많이 살고 있는 미개한 나라’라는 정도의 인식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문화방면이나 사회 시설 같은 것도 별로 보잘 것이 없어서, 농민들의 주택은 대부분이 초가집일 것이요 지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원두막 같이 원시적인 집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이었다. 다시

<sup>5</sup> 송지영, 정비석, 조병화, 주요섭 외, 『자유중국의 금일-대만기행』, 춘조사, 1958.

<sup>6</sup> 정비석, 『汚吏도 먼지도 없어진 臺灣』, 위의 책, 50쪽.

말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뒤떨어진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열 두 명은 공중에서 대만을 처음으로 내려다보는 그 순간에 대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놀랍도록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러한 자각은 날이 갈수록 절실하여서 2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났을 때에는 대만이야말로 우리보다 앞선 나라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sup>7</sup>

이러한 인식 전환은 방화한국문화친선단(이하 ‘문화친선단’으로 약칭)이 대만 방문 동안 유능하고 청렴한 국영기업의 중역 관리자들, 훌륭한 인품의 공무원들, 검소한 차림의 교장 선생님, 사치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사회풍토와 거의 무상에 가까운 교육, 주거 혜택, 잘 정비된 도로, 거지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거리와 잘 조성된 도시 경관, 먹을거리가 풍족한 식량 사정, 남아도는 가솔린과 전기 등 여러모로 남한에 비해서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합리적으로 발전된 사회상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무영이 “귀로에 뺨나나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촌뜨기”로 여길까봐 “그만 두었다”<sup>8</sup>거나 대만의 대학교를 견학하면서 정비석이 “도서관에는 좌석 하나에 형광등 하나씩이 켜 있는 것은 전기가 풍부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학생들의 면학에 학교당국의 성의가 대단한 증거”라고 말하며 놀라는 것에도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당혹스러운 열등감을 동반한 급격한 인식 전환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친선단은 일종의 관광객이자 “촌뜨기”로서 바나나를 사려다가 눈치를 본다든지, 도서관 좌석 하나하나 마다 형광등이 켜져 있는 광경에 놀라며, 늘 식량문제와 전기 부족에 시달리는 자국의 현실을 개탄한다.

더불어 흥미롭게도 이러한 개탄에는 ‘일어(日語)’가 매개되어 있기도 하다.

a) 거리에만 나가면 삼륜차부, 상점 할 것 없이 **일어(日語)**입니다. 내게는 대단히 편리하면서도 기이한 느낌이 듭니다.<sup>9</sup>

b) 전 섬 안에는 아직도 4만으로 추측되는 고사족(高砂族)이 산다 합니다. 원시색의 옷을 빌어서 사진도 찍고 ‘이야하야이야’(모두 오너라 함께 춤추자)의 노래와 춤도 구경했습니다. 추장은 모씨라 하며 아직도 동족 이외에는 통혼을 않는다 합니다.

대만에 와서 느낀 것은 아직도 일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사족들도 일어로만 통했습니다<sup>10</sup>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던 경험’을 공유한 대만의 길거리에는 아직도 “삼륜차부, 상점 할 것 없이 일어”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친선단은 소통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한족(漢族)이 대만 섬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고사족들과도 역시 “일어로만 통”한다.

---

<sup>7</sup> 정비석, 위의 글, 51쪽.

<sup>8</sup> 이무영, 「대만통신」, 위의 책, 123쪽.

<sup>9</sup> 이무영, 위의 책, 139쪽.

<sup>10</sup> 이무영, 위의 책, 120쪽.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 정책에 의해 대만 역시 탈식민 이후에도 ‘일어’로써 사회의 많은 부면이 가동되고 있었던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통치성이 미시적으로 고산지대의 고사족들에게 까지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 문화친선단이 “장기, 바둑과 운동선수는 많이 왔지만 **문화인**이 온 것은 처음이라”<sup>11</sup> 는 말에 뿌듯해 하며 그러한 고사족들을 관광하며 중국어는 모르는 그들에게 ‘일어’로 이것저것을 물어 본다는 이 광경은 전후(이차대전, 한국전쟁 후) 아시아 탈식민 신생 지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한 삽화(挿畫)라고 할 만하다. 이를 보면 이 삽화에서 문화친선단은 “바둑과 운동선수”와는 다른 “처음” 온 ‘문화인’으로서 대만의 발전된 사회상과 고사족(원주민)의 “이야하야이야” 춤추기’ 사이에 위치한다. 그들은 단순히 고사족들의 춤추기 쇼만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제국일본이 마련해주었던 잔존하는 범아시아적 공통지평이라 할 수 있는 ‘일어(日語)’까지 활용해 ‘문화인’답게 관광하며, 관광 일정이 끝난 후에는 ‘놀랄 만큼 깨끗하게 잘 정돈된 호텔방에 돌아와’ 대만의 전기, 가솔린의 풍부함의 비결을 조국에도 적용시킬 방법을 체류 기간 내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민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고민에는 “전도(全島)에 신고산(新高山)을 중심으로 (중략) 약 사만명이 서식(棲息)하고 있”다는 “고사족 또는 산지족으로 불리우는 (대만의-인용자) 변족들이” “지나치게 상업화한 모습뿐”<sup>12</sup> 인 것은 아닌지 하는 근심까지 결부된다.

문화인이자 “지식계급”으로서 장개석 총통까지 예방할 기회를 가졌던 이와 같은 ‘문화친선단’은 따라서 대만 기행 내내 ‘문명화된 발전 정도’라는 프리즘으로 모든 광경, 풍경, 타이페이와 타이난의 시민들, 대만대학과 정치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신고산에 “서식”하는 변족들까지를 바라본다. 그리고 이들이 유창하게 대만의 인품 훌륭한 관료들, 교장 선생님들, 시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변족들과도) ‘일어’라는 매개가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탈식민 이후에 ‘일어’, ‘일본적인 것’을 국가적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말소하려 한 남한과는 달리 대만은 일어, 일본적인 것 그리고 일제 식민통치에 대해서 한국보다 비교적 민족적 반감을 덜 가지고 있었다.<sup>13</sup> 즉 대만의 근대화와 산업화는 장 총통의 강력한 근대화 정책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일제의 통치성에 의해 준비되어 온 근대화 동력을 잘 활용한 결과이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문화친선단은 기행문에서 50년대 후반 당시 대만의 근대화 정도가 한국보다 월등한 이유를 결코 대만이 일본적 근대화의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흡수하려 한 것에 귀인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의 맹목적이라 할 만한 장 총통의 적극적 근대화 정책에 대한 흠숭의 태도로 은폐되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읽는 이로 하여금 해당 텍스트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대만의 월등한 근대화, 산업화의 주요한 한 원인으로 읽게끔 하는 반동적 독서를 유발시킨다.

“방화 제4일인 12월 6일 아침 일곱시 대북발. 9시 30분에 대남착. 공항의 규모와 정돈 청소에는 오직 우리 공항이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기상에서 본 대만에는 정말 저수지가 많았습니다. 아세아에서는 가장 토지개혁에 성공한 곳이 중국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낙하산부대**

<sup>11</sup> 이무영, 위의 책, 122쪽.

<sup>12</sup> 송지영, 「자유중국의 금일」, 위의 책, 43쪽. 강조는 인용자.

<sup>13</sup> 백영서, 위의 글, 39~41쪽.

**만큼이나 저수지가 많았습니다.** 대만에는 거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대사관에서도 듣고 우리 교표한테서도 들었지만 대남과 고웅 양도시만 보고도 이 말이 수긍되었습니다.”<sup>14</sup>

우리 공항을 부끄럽게만 만드는 대만의 공항, 그리고 거지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대만 도시의 풍경은 ‘문화친선단’으로 하여금 대만의 근대화, 산업화의 수준을 다시한번 깨닫게 한다. 더불어 이 때 대만은 ‘토지개혁에 성공한 중국’이라 불리는데 이러한 호명은 상술했듯이 당대의 중공(中共)에게서 중국이라는 기표를 떼어 내 그것을 대만에게 부여하는 행위로 동양의 대국이자 동양문화의 종조국으로서 ‘중심에 있는 나라(中國)’라는 의미를 가진 ‘중국’의 전통을 계승하는 적통이 ‘중공(中共)’이 아니라 ‘발전된 대만’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친선단’이 대만의 교육정책과 도색문학 척결 정책을 고평하며 “대학원 학생에게는 중국 학생에게나 외국학생에게나 매달 3백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sup>15</sup>고 전하거나 “중국은 지금 이 황색문학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을 섰습니다.”<sup>16</sup>와 같이 말하는 데에서도 발견되는 호명법으로 당대 한국의 “지식 계급”의 인식에 “중공(中共)이 아니라 대만(자유중국)”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분할 구도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물론 문화친선단의 일원이었던 이무영이 장개석 총통을 만나 뵈고 존경심에 취해 “일찍이 중대륙을 오히려 좁다 하고 조국통일의 성업완수를 위하여 형자의 길을 걸어온 총통. 일찍이는 6억 5천만의 대국가의 원수이던 분이 대만 일우에서 본토광복의 기회를 기다리는 그 초조한 심정을 생각할 때 눈 속이 뜨거워졌습니다.”라고 술회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친선단’이 장개석으로 대표되는 대만의 국민당 세력이 ‘중국’의 적통으로서 중공을 물리치고 ‘본토광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문화친선단’은 ‘중국’의 적통으로서의 국민당 세력이 대만에서 끊임없이 근대화, 산업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본토광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고 또 그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중국’이라는 기표는 여타의 인접 개념들(‘중공’, ‘대만’, ‘자유중국’)과 교집합을 이루는 동시에 상호 배척하기도 하는, 다분히 그 의미론적 함의가 유동적인, ‘고유명사’가 아니라 ‘개념’으로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중공’과 교집합을 가지지만 중공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며 대만과도 교집합을 가지지만 대만과 완전히 동일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냉전기 자유진영의 우방으로서 한국의 “지식계급”들은 담론장 내부에서 끊임없이 ‘대만’과 ‘중국’의 교집합의 크기를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담론실천을 전개해 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금문도와 장 총통

1956년 3월 9일 마닐라에서는 제2차 아시아민족반공회의가 개최되었다. ‘아시아민족반공연맹’

---

<sup>14</sup> 이무영, 위의 책, 116~117쪽. 강조는 인용자.

<sup>15</sup> 위의 책, 105쪽.

<sup>16</sup> 위의 책, 112쪽.

은 1949년 이승만이 장개석 총통을 진해의 별장으로 초대해 2차에 걸친 회담을 통해 결성해 낸 아시아 지역의 반공 국가들의 연맹이었다. 2차 대회에서는 한국, 자유중국, 필리핀, 월남, 태국의 5개 국가가 이사국이 되었다. 이 2차 대회에서 결의된 결의문 중 13조에는 “자유중국의 금문도, 마조도의 공동방어를 지지한다.”<sup>17</sup>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조그만 섬인 금문도와 마조도가 대만과 중공 사이 해협에 위치한,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중공과 가장 인접한 최전선으로서의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문화친선단’의 한 발언을 빌자면, “금문도는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섬”이지만 “요즈음도 자주 신문지상에 떠오르는 자유중국의 최전선이며 가장 중요한 반공(反共)의 거점”이자 “자유중국이 대륙을 향하여 정의의 화살을 겨누는 기지이며, 또한 회천의 대업을 일거에 성숙시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전선인 것이다.”<sup>18</sup> 냉전기 자유진영에게 있어 금문도가 위치한 양안 해협의 군사적 중요성은 『새벽』지에 번역 게재된 “대만해협의 숨은 위협”과 관련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극동에 있어서 공산 측의 새로운 침략에 대하여 경고를 발”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이런 점에서 ‘문화친선단’의 일원이었던 조병화가 금문도의 공간적 숭고함을 예찬하기 위해 쓴 다음과 같은 시구는 당시(냉전기) 남한-대만 관계의 성격이 가지는 일단을 집약적으로 압축해 보여준다 할 수 있다.

#### 금문도(시)/ 조병화

그 옛날 이 섬 금문도는/ 남지나해 일대에 출몰하는/ 해적들의 본거지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섬 금문도는/ 자유의 요새/아세아의 아성/ 극동의 신경/ 온 자유 아세아 시민들을 지켜 주는/ 불면의 섬이다.// 금문도는 작은 섬/금문도는 나무가 없는 섬/금문도는 바람이 많은 섬/금문도는 암석만이 남은 불모의 섬/금문도는 보잘 것 없는 모랫바람의 섬//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섬은/ 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뜨거운 심장/ 그런데 지금 이 바람이 많은 섬은/ 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사랑의 요새/그런데 지금 이 암석만 남은 불모의 섬은/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불멸의 의지/그런데 지금 보잘 것 없이 모랫바람만이 역센 이 섬은/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피와 눈물 땀과/온 형제자매들의 뜨거운 사랑 믿음 의지 그리고 악수/ 한결 같이 맑은 혈액이 흐르는 땅/(중략) 지금 금문도 한 별판 모랫바람이 역센 불모의 지하 지하는 / 우리의 우방 뜨거운 형제들의 피 그리고 신경 그리고 의지/ 그리고 생명// 지금 금문도 태무산 산록/전물군인사당엔/ 피에 묻힌 우리의 형제들이 (중략)/ 풍선을 올린다/풍선을 띄운다/바람에 그리운 육지로 바람이 불면 섬에선 풍선을 날린다. /<동포여! 선량한 동포여! 자유의 나라 이곳으로 오라!>/<반공 향아 민족의 나라 동포의 나라 이곳으로 오라!>/<조직을 부수고 인간을 찾자 자유 인간의 나라 이곳으로 오라!>/<중략/>지금 이 섬 금문도는/ 자유의 요새/아세아의 아성/(중략)/ 온 자유 아세아 시민들을 지켜 밤낮을 새우는 자유중국 불면의 섬이다.<sup>20</sup>

<sup>17</sup> 배상하, 「제2차 아시아민족반공회의의 성과」, 『새벽』 1956.5, 66쪽.

<sup>18</sup> 송지영, 「자유중국의 금일」, 위의 책, 31~32쪽.

<sup>19</sup> 뉴욕타임스, 「대만의 방어」, 『새벽』 1955.5, 132쪽.

<sup>20</sup> 조병화, 시 「금문도」, 조병화 시집 『石阿花』, 정음사, 1958, 53~56쪽.

이 시는 중공-대만의 대립상황에서 금문도가 가지는 공간적 승고함을 예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조병화가 그러한 양안 대립을 대리적 표현수단으로 삼아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서도 발설(절규)하고 있는 시라고 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시는 “동포여!”에 첨가된 ‘!’(느낌표)에서 그리고 “자유야 나라 이곳으로 오라!”고 동포에게 풍선을 날린다는 공통적 비참상을 매개로 금문도(대만)의 상황과 남한의 접경지대의 상황을 연결시킨다. 지금도 ‘자유세계의 시민들’을 파주의 통일각에서 북으로 자유세계로 오라는 풍선을 날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세계 곳곳의 복수의 접경지대의 어떤 비참상을 금문도의 상황을 통해 제유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자유세계’가 정말 ‘자유’롭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라보다(당연히 자유롭지 않다.) 이 시의 화자의 어조에 나타나는 ‘자유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같은 것이 이미 ‘자유로운 영혼’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감지하게 될 때 느껴지는 총체적 끔찍함일 것이다. 일제 말기 전시 문학 예컨대 서정주의 「마쓰이 오장 송가」를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전장 공간의 승고함’을 ‘미학화’하려는 시도들에서 삭제된 것은, 다소간의 상투성을 무릅쓰고 말할 수 있다면, 병사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일 것이다. 그들의 생명 희생은 ‘승고함’으로 ‘미학화’되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능했을 여타의 복수적 해석가능성을 차단당한다.

금문도가 “은 자유 아세아 시민들을 지켜 밤낮을 새우는 자유중국 불면의 섬”이라면 그것을 운용하는 자유중국 군부의 정점이자 최고 통수권자인 장개석 총통 역시 금문도와 마찬가지로 ‘승고한 의미를 부여받아 미학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a) 송(頌) 장 총통(시)/ 조병화

이 어른은 역사를 왕래하시는/ 어른이시다/ 이 어른은 동양을 시민의 역사로부터 해방시키신/어른이시다./ 이 어른은 이민족의 모든 야욕과 침략으로부터/민족을 국토를 국가를 구출하신/이십세기 아세아의 영웅이시다/이 어른은 중화민국 오천년 사역육천만/민중의 영도자/ 이 어른은 중화민국 오천년 사역육천만/민중의 생명과 생존과 자유를 위하여/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어른이시다/이 어른은 인류의 무자비한 야만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계시는 어른이시다/이 어른은 인류의 무자비한 침략자 아라사와 싸우고 계시는 어른이시다/생각이 깊으시고 인자하시고 투철하신/ 신념의 어른 의지의 어른관철의 어른/이 어른은 역사를 왕래하시는 어른이시다/이 어른은 동양을 모든 침략의 역사에서 해방시켜주신 어른이시다/중화민국 오천년 사역육천만 민중의 생명과 생존과 자유를 위하여/반공(反共) 항아(抗俄) 민족혁명을 실천하고 계시는/아세아의 위대한 어른이시다<sup>21</sup>

b) 열시 30분 정각 우리는 총통실에서 장총통을 보였습니다. 일전 뉴스에서 보던 때보다는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따로 따로 인사까지 하십니다./ 화제는 역시 양민족문화의 교류였습니다. 72세의 노령이면서도 오히려 우리보다도 정기가 있어 보였고, 회담 중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장총통을 정면으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중대륙을 오히려 좁다 하고 조국통일의 성업완수를 위하여 형자의 길을 걸어온 총통/ 일찍이는 6억

<sup>21</sup> 조병화, 위의 책(시집), 9~10쪽.

5천만의 대국가의 원수이던 분이 대만 일우에서 본토광복의 기회를 기다리는 그 초조한 심정을 생각할 때 눈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정무위원과 정부 고관들에게 장시간의 훈시를 한 끝이라면서도 조금도 피로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10분 에 불과한 회담이었지만 최근에는 가급적 외빈접견의 도는 줄이고 있다는 것이 측근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접견해 주신 총통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감격했습니다.<sup>22</sup>

장 총통이 “아세아의 위대한 어른”이라는 표현은 금문도가 “온 자유 아세아 시민들을 지켜 밤낮을 새우느” 섬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확장적 의미를 지닌다. 장개석 총통과 금문도는 모두 ‘대만’ 만의 것이 아닌 것이다. 장 총통은 온 ‘자유진영’, 온 ‘자유세계’의 위인이며 금문도는 온 ‘자유세계’를 지키는 최전선으로서의 숭고한 공간이자 외로운 희생적 고도(孤島)의 의미를 부여 받는다.

대만과 한국이 속한 ‘아시아 자유세계’라는 것이 한국의 “지식계급” 담론장에서 어떻게 표상되었는지는 중공의 팽박을 피해 자유중국으로 건너온 소설가의 사례를 소개하는 『새벽』지의 한 기사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자유세계로 온다는 것은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세계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때 기사의 문맥에서 자유중국(대만)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데 그것은 중공에서 자유중국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는 소설가 潘人木이 원래 대만에서 살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돌아와 품에 안기는 것’으로 표상된다. 중공에서 자유중국으로 탈출한 소설가 潘人木의 장편 『蓮漪表妹』의 여주인공 백련의(白蓮漪)는 중공 치하에서 “전란 후 세태에 휩쓸려 짐짓 타락의 길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가 체득한 중공(中共)이란 독약보다도 더 무서운 살인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후의 용기를 내어 중공 지구에서 벗어나 자유중국의 품안으로 돌아온 것이다.”<sup>23</sup>

자유중국과 장개석 총통을 위시한 국민당 세력에 대한 전후 냉전기 남한 지식인 담론장의 우호적인 태도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공유한다는 정치적 입장에서만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같은 아시아 권역 내 근린이라는 동질감과 유대감’ 그리고 ‘따뜻한 품으로서의 자유세계’라는 수사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즐고 「1950년대 『사상계』의 ‘중국’표상 및 담론 연구」의 3-2)절에서 간략하게 분석한 바 있다.<sup>24</sup>

‘자유중국’과 ‘장개석’에 대한 전후 냉전기 남한 지식인의 동질감 어린 서술 태도는 조효원과 김준엽의 서술에 단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중국의 근 백년사-더욱이 중화민국사를 둘러보면 직관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중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암은 ‘군벌의 할거’와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이었다. ‘중국의 군벌을 일소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장개석(1928-중화민국 17년)의 북벌 성공은 역사적 가치가

<sup>22</sup> 이무영, 위의 글, 132쪽.

<sup>23</sup> 윤영춘, 「자유중국의 문학」, 『새벽』 1955.3, 68쪽. 강조는 인용자.

<sup>24</sup> 즐고, 「1950년대 『사상계』의 ‘중국’표상 및 담론 연구」, 『동방학지』 182,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8. 이 논문의 주제는 ‘대만(자유중국)’이 아니라 ‘중공’과 ‘중국’표상이 어떻게 교직되어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중국’ 표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다루었다.

있는 일이다. 만일 외국의 간섭-특히 '일본'과 '쓰공(共)'의 음모와 방해가 없었던들 장개석을 수반으로 하는 '국민정부'는 그들의 통일을 공고히 하여 역대 통일제국 진(秦),한(漢),수(隋),당(唐),송(宋),명(明)과 마찬가지로의 한족(漢族)의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그들의 역사적 사명인 근대화'를 완수하였을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sup>25</sup>

더불어 김준엽은 장개석이 "쑨원의 영전에 복벌 완성의 봉고제를 거행"하는 장면을 영탄적인 어조로 서술함으로써 쑨원(손문)->장제스(장개석)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우익 민족주의의 계보에 대해 전후 자유민주주의 담론의 가장 활발한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상계』지의 핵심 멤버로서 감정적 동일시와 존경의 서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효원 역시 쑨원의 한(漢)민족주의와 삼민주의를 고평하며 "그 모두가 실로 약소민족 해방과 민족자결을 요결로 하는 아세아 민족주의의 숨김없는 발현이었다."<sup>26</sup>고 말하며 중국 내 우익 민족주의 세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과 공감을 표시했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대 『사상계』 지의 근본이념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면 '문화적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반공주의적인)', '지식인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쑨원-> 장제스(장개석) 그리고 자유중국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동아시아 권역 내 우익 민족주의의 계보는 『사상계』지의 근본이념과 충실히 공명할 만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강한 아버지에 대한 염원의 매개로서의 대만과 장 총통

저 분이 30년 동안 다난한 중화민국의 역사를 떠메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유세계의 승상을 받는 장개석 총통이구나 하고 마음 속에 뇌까려 보며 그 분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때 나는 가슴 속을 치밀어 오르는 깊은 감개에 사로잡혀 불쑥 뜨거운 눈물이 솟구침을 어찌할 수 없었다.<sup>27</sup>

이는 문화친선단의 일원이었던 송지영이 장개석 총통을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의 소감을 피력해 놓은 것이다. 장개석에 대한 이와 같은 흠숭(欽崇)의 표현은 단순히 '자유진영의 우방국'의 총통이라는 이유를 훨씬 초과한 어떤 울먹임 어린 공감대 같은 것이 개재해 있음을 알게 한다. 그것은 제1공화국 체제의 무능한 국부(이승만)와는 다른 유능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강한 캐릭터를 가진 장개석 같은 지도자를 염원하는 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자유중국의 금일-대만기행』에는 송지영, 정비석, 주요섭 등을 포함 8명의 필자가 문화친선단 경험을 토대로 각기 다른 대만 기행문을 썼지만 당혹스러운 정도로 판에 박은 듯이 비슷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1. 대만은 남한보다 발전된 국가이다. 2. 대만에는 거지가 없다. 3. 대만에는 먹을거리와 전기가 풍족하다. 4. 유능하고 청렴한 행정관료들이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5. 교육정책이 민주적이며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5. 누

<sup>25</sup> 김준엽, 「중국국민정부는 이렇게 하여 몰락하였다(상)」, 『사상계』 1955.5.

<sup>26</sup> 조효원, 「아세아민족주의의 정도를 위하여」, 『사상계』 1954.11.

<sup>27</sup> 송지영, 「자유중국의 금일」, 위의 책, 30쪽.

구나 일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한다. 6.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학생 등 모두가 할 것 없이 차림새가 지나치게 검소하며 사치 풍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6. 자전거가 많다. 7. 초가집이 없고 농촌의 살림이 매우 풍족하다. 8. 금문도는 매우 숭고한 공간이다. 9. 장개석 총통을 보니 눈물이 날 것처럼 감동적이다.

라는 8개의 항목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발전의 공적은 미국 원조 물자의 투명하고 적절한 사용과 남국의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한 삼모작의 가능 그리고 행정관료들의 공정한 사명감과 유능함, 성실함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통해 이러한 모든 유능한 행정관료들을 그려잡고 있는 최상위 권력자는 장개석 총통이다.

장개석에 대한 평가는 마치 박정희에 대한 평가처럼 엇갈릴 수 있으나 전후 냉전기 한국 지식인들의 장개석에 대한 인식은 극적으로 우호적인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문화친선단'이 대만의 모든 행정, 정치, 경제, 농촌, 교육, 대학, 길거리, 검소한 의식주 문화 등을 고평할 때마다 그 반대항으로 즉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부정태이자 미달태로 남한의 현실 정치, 경제, 농촌, 대학, 길거리, 의식주 문화를 꼬집고 비판했다는 데에 있다.

이는 남한을 무질서, 검소와 반대되는 허영, 부패, 비싼 교육비(이것은 온당한 비판이지만), 주거 불안, 더러운 길거리, 믿을 수 없는 행정 등으로 표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서술은 곧 50년대 후반의 맥락에서 장개석과 이승만을 내지는 장개석 체제와 이승만 체제를 비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대만(자유중국)이라는 자유진영의 우방국에 대한 상찬이었기에 망정이지 대만에 비해 부정적인 한국의 현실을 꼬집는 어떤 부분은 어떻게 검열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이기도 하다.

이는 곧 도래할 강력한 지도자, 질서와 급속한 경제발전을 불러일으킬 즉 '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강한 지도자를 염원하는 징후적인 텍스트로, '문화친선단의 대만 기행기'를 읽게 하기도 한다.

문화친선단이 대만을 방문한 게 57년 겨울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뒤에 있을 4.19라는 사건과 그것에 연이어 곧바로 등장하는 박정희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출현은 이런 점에서 50년대의 우파적, 반공주의적 "지식계급"(문화친선단)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강하고 유능한 경제 지도자에 대한 염원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과연 박정희의 출현과 50년대 후반 우파적 지식계급의 '강하고 유능한 경제 지도자에 대한 염원' 간에 전혀 상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1961년 5.16 정변 이후에 남한은 장개석 총통 하의 대만처럼 노동조건이 좋아지지도 의료와 주거 복지가 제대로 개선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박정희와 군부가 민중의 열망과는 반대로 독단적으로 5.16을 통해 4.19의 '순수한 열망'을 좌절시켰다는 식의 통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50년대의 문화적 민족주의-자유민주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한 우파적 지식인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강하고 (무엇보다) 유능한 지도자'에 대한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극적인 염원의 태도는 무언가 5.16 역시 그것이 받아들여질 토양으로서의 집단감성의 계보를 이미(50년대부터) 전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조심스러운 가정을 세워 보게 만드는 것이다.